ORDINARIATE MILITARY OF KOREA

군종주보

2019년 1월 20일(제912호) 연중 제2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따뜻한 사랑의 기적"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는 다해에 속하는데, 다해의 주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지 전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연중 제2주일에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지난 주님 공현 대축일 강론에서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당신을 드러낸 네 가지의 사건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목자들에게 드러낸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카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모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데에서 초대 교회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접하는 카나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나는 나자렛에서 불과 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여성을 초대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듯이, 단지 축제에 손님으로 초대된 것만이 아니라 일을 거들기 위해서도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을 시작하실 무렵이었고, 그분은 그때까지 선택하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부족해진 것을 곧바로 눈치챘고, 그 때문에 신혼부부와 온 가족이 난처해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것이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들의 물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는 잔치를 위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영광이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야 포도주가 매우 비싼 고급술로 평가되지만, 팔레스티나나 지중해의 여러 나라에서 포도주는 기본적인 식탁의 음료로 통용됩니다. 축제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무례를 끼치는,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매우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은 신혼부부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신혼부부는 잔치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고, 누가 포도주를 구해다 주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 매우 고마웠을 것이고,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카나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매우 따뜻하고 감사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카나에서 신혼부부들이 느꼈을 그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은 우리를 죄의 위기로부터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참으로 따뜻한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그러한 분을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영근(다니엘) 신부
민포대(해군 2함대)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62,1-5
화 답 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 2 독 서	1코린 12,4-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 음	요한 2,1-11
영 성 체 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박대식 빅토리노



성인명: 박대식 빅토리노 (朴大植 Victorinus)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12-1868년

박대식(朴大植) 빅토리노는 경상도 김해 예동(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사람으로 천주교에 입교한 다음에는 언제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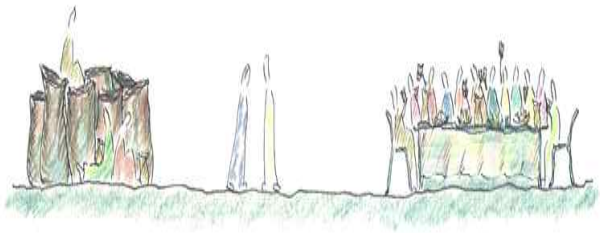
그러던 가운데 1868년의 박해 때에 대구에서 내려온 포졸과 김해 포졸들이 함께 그의 집으로 몰려와, 박 빅토리노와 그의 조카 박수연을 체포하여 김해 관아로 압송하였다. 당시 그의 조카는 아직 예비 신자였다. 김해 관아의 옥에서 박 빅토리노는 송 마태오와 박 요셉을 동료로 맞이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였기에 3일 만에 대구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대구 감사는 결국 박 빅토리노와 그의 동료들을 결코 배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 빅토리노는 조카와 동료 2명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형을 받았으니 그때가 1868년 10월 12일(음력 8월 27일)로, 당시 박대식 빅토리노의 나이는 56세였다. 참수형을 집행한 다음, 감사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명분으로 그들의 머리를 높이 매달게 하였다. 한편, 박 빅토리노의 가족은 그가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구로 와서 그의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애야, 네가 책임져라.



애야,
네가 데려온 친구들이
술을 다 마셔 버렸다.
네가 좀 어떻게 하여라.

어머니,
내가 어쩌라고요.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왜, 저런 이들을
몰고 와서는...
한둘도 아니고...

별수 없다.

"저기요,
저 통에 물 좀 채우세요."

성화이야기

목동들의 아기 예수님 경배



죠르지오네,
1505년 作
패널 위 유화,
90.8x110.5cm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미국

지난주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그린 그림을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가난하고 소박한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죠르지오네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림들을 제작하였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거의 찬 바닥에 누워계시고, 한 손으로는 자신을 싼 흰 천을 손에 쥐고 놀고 계시며,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무릎을 꿇고 이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천사들이 구름과 함께 이를 빼꼼히 내려다보고 있다. 정작 이 그림의 주제인 목동들의 표정과 자세가 인상적인데, 너덜너덜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목동 중 한 명은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한 명도 곧 그렇게 할 것이다. 이들의 표정은 옆모습으로 거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 흑백으로 출력되면 거의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들의 표정에 담긴 겸손함과 찬탄과 경탄 등 매우 복잡한 감정을 화가는 고스란히 잘 담아내었다.



동굴 입구의 천사들(두상)



뒷배경의 다른 목동 두 명은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 그려져 있다.

너무나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지고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목동들의 자세와 표정은 그 무엇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럽다. 우리도 구유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성요셉(의무사) 조완 신부

◆ 교구장 동정

- 회의

때·곳: 1월 22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의 14:00, 참사회의 16:00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1월 24일(목) 18:00

곳: 군종교구청 1층 소성당